

잡아함 40 봉체경

날짜: 12월 19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14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집착[封滯]하면 해탈하지 못하고,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하느니라.

‘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한다’는 것은 무엇인가 ? 비구들아, 네 가지 취음(取陰)을 반연하여 식(識)이 머무르니,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? 색(色)에 집착하여 식이 머무르고, 수(受) · 상(想) · 행(行)에 집착하여 식이 머무른다.……(내지)……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, 이것이 ‘집착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’는 것이니라.

‘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’는 것은 무엇인가 ? 색의 경계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면 ……(내지)……6)깨끗하고 진실한 열반에 들어가나니, 이것이 ‘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’는 것이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.